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3일 10시 31분



목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목차 | 2 |
| 보도자료 - 건설 | 3 |
| COP28 유치도시 여수,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본격화 | 3 |

보도자료

해명자료

COP28 유치도시 여수,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본격화

2021.05.24 조회수 163 담당부서 공원과 담당자 김미래 연락처 061-659-4635

- 숲으로 치유되는 여수, 도심 속 치유공간 7ha 조성
- 국비 35억 원 등 70억 원 투입, 4만 4400여 주 식재

여수시(시장 권오봉)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라선 폐철도 및 울촌산업단지 등에 미세먼지 차단 숲 7ha를 조성한다.

여수시는 산림청으로부터 35억 원 등을 지원받아 총 70억 원을 투입해 전라선 폐철도 울촌조화공원 2km 구간 2ha와 울촌산업단지 4.6ha,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 0.4ha 일대에 가시나무, 메타세쿼이아 등 28종 4만4400여 주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다.

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흡착과 흡수 기능이 높은 가시나무, 느티나무 등 수목을 식재해 산업단지와 주요 도로변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.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됐다.

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당 흡수하는 미세먼지는 연간 35.7g으로 경유차 1대가 연간 내뿜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약 47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. 차단 숲을 조성할 경우 미세먼지(PM10) 농도는 평균 25.6%, 초미세먼지(PM2.5) 농도는 평균 40.9%까지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시 관계자는 “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여수시는 ‘민관산학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 Zero 도시 여수’를 비전으로 1천ha 나무 식재 등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(‘0’)를 달성할 계획이다.

여수시는 지난해 30억 원을 들여 철도폐선부지인 덕양 양지바름공원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도심 속 수목원과 같은 치유공간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.


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
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

 1. COP28 유치도시 여수,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본격화.jpg (612 hit/ 456.5 KB) [↓](#)

[미리보기](#)

 1-1. COP28 유치도시 여수,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본격화.jpg (613 hit/ 646.9 KB) [↓](#)

[미리보기](#)

이전글

한국동서발전(주) 호남발전본부, 여수시에 3000...

다음글

여수시, '수해 예방' 용수 소화천 정비사업 본격 추진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